『누구를 위하여 책을 읽었나』

(책이 책을 말한다)

'일일불독서구중형생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너무나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말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10분이라도 책을 읽으면 엉덩이에 가시가 돋는다거나 졸음이 밀려온다고 호소한다.

예로부터 책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소위 독서라는 우아한 취미와 노동은 도서관을 드나들 수 있는 일부 지배층의 문화였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책은 교서관(校書館, 조선시대 경적經籍의 인쇄와 교정·향축香祝·인전印篆 등을 맡아 보던 관청)이 간행해 국왕이 신하에게 내린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다. 종이와 품삯을 내면 책을 찍어주거나 역관 등을 통해 완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돈 있고 배경 있는 상류사회만의 호사였다.

왕가나 성직자, 관료 등 지배계층은 인류 지식이 응축된 책을 마치 '마법의 거울' 처럼 독점했다. 그 속에서 구미에 맞는 내용을 뽑아 각색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견고히 다져 나갔다. 조선시대의 유교경전과 중세 유럽의 성경이 대표적이다. 일반대중에게 이러한 책을 직접 읽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권위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 지배 이데올로기의 방패, '금서'와 '각색·왜곡'

인쇄술의 발달과 일반대중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책을 독점할 수 없게 되자 기득권세력은 금서라는 것을 만들었다. 《데카메론》《신곡》《군주론》《채털리 부인의 사랑》《자본론》 등이 당대의 금서목록에 올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피렌체의 인문학자 보카치오의 대표작인 《데카메론》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펼치는

《책과 혁명》 로버트 단턴 지음 / 주명철 옮김 / 길 / 582쪽 / 값 28,000원
《근대의 책읽기》 천정환 지음 \ 푸른역사 \ 564쪽 \ 값 19,500원
《책 죽이기》 조란 지브코비치 지음 / 유향란 옮김 / 문이당 / 232쪽 / 값 9,000원

음담패설 등을 모은 소설로 인간이 추구하는 성적 욕망과 속임수를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근대소설의 시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음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세기 초 일본에서도 판매금지 처분을 당했고, 미국에서는 음란서적으로 낙인찍힌 바 있다.

그렇다고 이들 금서들이 모두가 반체제적인 의도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대혁명을 중심으로 금서의 영향력을 면밀하게 분석한《책과 혁명》의 저자 로버트 단턴은 당시 프랑스에서 금서는 그저 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불법 문학시장의 수요에 맞추려는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저자가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18세기 인기 있던 금서들은 계몽주의의 고전보다 지금은 잊혀진 질낮은 대중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 계몽사상가의 체제에 반하는 책과 마찬가지로 한번 유통되기 시작한 금서는 왕과 귀족, 성직자의 권위에 흠집을 내며 체제를 허무는 힘을 발휘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프랑스인에게 성적 일탈은 종교적 교리에 대한 도전이었고 자유사상 그 자체였다고 분석한다.

● 1920, 30년대 조선 사회, 책의 대중화 시작

유럽에서 책이 근대적인 외형을 갖춘 일상용품이 된 것은 17세기 문학이라는 광범위한 장르가 기반을 굳혀가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층 중심으로 공급되던 서적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민들의 여가와 정보를 위한 것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동원대 부길만 교수는 "개인이나 서사가 판매를 위해 별도로 목판으로 제작한 방각본이 이때 활발히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 교수에 따르면 그러나 글을 읽을 수 없었던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문 이야기꾼인 전기수에 의존해《숙향전》《소대성전》《심청전》《설인귀전》등의 작품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책읽기가 취미로서 자리를 잡은 시기는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천정환의《근대의 책읽기》는 1920~30년대, 근대와 전근대가 충돌하던 당대의 독서 풍경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이전의 독서가 '비생산적 유한계층' 인 선비의 점유물이었으나 평범한 조선인들도 책에 손을 뻗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지식이 광범위하게 전승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질서를 강조하는《주자가훈》과 페미니즘 소설《인형의 집》이 함께 읽히는가 하면《성욕과 성교의 신연구》《남녀 생식기 도해 연구》란 성性 관련 서적들과 레닌의 저작, 총독부 수험서가 나란히 광고되기도 했다. 192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근대적 학교와 매체가 글을 깨친 독자를 양산해 독서는 더 이상 일부 지배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의 오락거리와 취미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 문학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문예적 전범의 정립' 역시 이 시기에 이뤄졌다. 1910년대 말, 전문적인 식견에 의한 '비평' 이 시작됐고 1930년대 초반부터는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 '명작' 이 선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비평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작품은 많지 않았다. 1920~30년대 독자의 주머니를 열게 한 문예작품은 염상섭이나 이상의 것이 아니라《춘향전》이었다.

● '책 죽이기' 우려… '그럼에도 책은 죽지 않는다'

책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데 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많은 독자를 울고 웃기고 때론 찢기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며 인류의 진보에 몸을 아끼지 않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합당한 대접은커녕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책이 화자로 등장해 "책 노릇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조라 지브코비치의《책 죽이기》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로 상처받은 책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물론 오래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는 나날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사실상, 책이 멸종위기 직전에 처해 있는 종種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다. (…) 이 세상을 찬란하게 빛내 온, 단 두 종의 지적 생명체 중 하나가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화상의 대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책 죽이기》12쪽)

물론 그렇다고 정말 책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전만큼 선호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 자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받은 사람은 여전히 읽기와 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이러한 통제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역시 책을 읽고 쓰는 것이다.

글 | 신동섭 기자